제주사회복지신문

제76호

2014년 2월 4일 〈월간〉

www.jejubokji.net

>발행인 : 고치환 >편집인 : 김수완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2014 道 사회복지 예산 크게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예산비중이 23.9%로 크게 확대돼 저소득층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이 강화되면서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체계가 기존 통합급여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로 분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차등화 해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 로 전환한다.

생계급여는 현행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 대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분을 지원하던 것을 중위소득 30%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축소한다.

다만 주거급여는 현행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와 같이 매월 20일 통장에 입금(4인가구 기준 최대 245천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개량과 현금지원을 병행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며, 의료급여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현행과 같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현행 월 평균 89천원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 이후 기초연금으로 전환대면서 대상자 중 90%가 20만원, 10%는 15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도 확대해 현행 3076명에서 4314명으로 늘릴 예정이며, 노인 대학 및 대학원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확대 운영한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연금이 확대되면서 연 9만6800원이던 기초급여가 7월부터 월 20만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위한 제주권역 재활병원도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 8개 과목으로 진료를 시작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해 일반형 일자리 78명, 복지일자리 743명, 안마사 파견사업 14명 등 835명으로 확대했으며, 도내 관광지와 숙박, 음식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보제공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 분야는 셋째 자녀 이후 지원하던 양육수당이 둘째 자녀부터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제주 서귀 성산 한림 등 4개소에 출산용품 및 대여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24개소에서 27개소로 늘어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된다. 또 24시간 어린이집은 1개소에서 3개소로, 휴일 어린이집은 71개소에서 86개소로 늘어난다.

아동복지 분야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되며, 가정위탁·시설퇴소 아동 자립 지원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가정위탁·시설아동 용돈도 기존 15천원~25천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룹홈·개인운영 아동양육시설 아동을 위해선 기존에 간식비만 지원하던 것을 간식비와 자립지원금 등 10개 사업으로 법인운영 시설아동과 동일수준으로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기존 1인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는 총 300쌍에 대한 부부 종합 검진비 지원, 다문화 가정 100가구에 대한 위성안테나 설치 지원 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조성을 위해 기여할 예정이다.

여성복지 분야는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가 개소되며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장 5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역 밀착형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오는 2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소아암·백혈병 환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우선 제주대학교 병원에 소아암센터를 설치해 도 내 소아암 환자에게 진료 무균실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도 내 등록 소아암 환자의 교통(항공)비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책정하는 한편 타 지역 의료기관 진료 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서귀포 의료원 심뇌혈관 질환 진료를 추진하며, 정보화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제주지역 한의약 연구소를 추진하는 한편 도민 의료사랑방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급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546천원→1631천원 인상

지면소개

- 종합 ····· 2·3면
  - 도민중심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로 개편추진
  - 장애인이 불편함 없는 제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사회복지소식 ····· 4·5면
  - 영화 '수상한 그녀' 베라여프리 버전 상영
  - 미담 "마음이 담긴 편지"
- 오피니언 ····· 6면
  - 칼럼·시론·기고
- 기획 ····· 7면
  -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0)
- 특집 ····· 8면
  - 새해 맞아 사회복지인 화합과 도약 다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이·취임식

2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3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마을 신문기자 및 편집위원 모집	마을 소식을 널리 알리고,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실 아라동 지역주민	1월~모집시까지 / 무료 / 복지관 2층(프로그램실)	702-4605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합창단 단원 모집	노래 부르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실 아라동 지역주민	1월~모집시까지 / 무료 / 복지관 2층(프로그램실)	702-4605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제9기 청소년자원봉사 교육강사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와 교육, 청소년자원봉사 강의 기획, 강의스킬, 강의실습 등	2.8(토) / 2.15(토) / 2.22(토) 9:30~16:30 / 성인 30명 / 본 센터 강당 / 참가비 100,000원(교재비 포함)	751-5041~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	- 파워 블로거 되기, 한글문서 작성하기, 자격증 취득 과정, 스마트폰 사용법, sns 등 - 도내 거주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과정 당 선착순 6명)	3~12월 / 복지관 별관 2층 정보화 교육장 / 무료	문화지원팀 702-0295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2차 컨퍼런스	-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자의 실무역량 강화 - 강사:한국사례관리학회 조현순 교수, 유명이 교수 - 사례관리전문가양성교육 실무자 기초과정 이수자 대상	10일 / 14시~17시 / 협의회 2층 강당 / 무료	702-3784

도민중심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로 개편추진

도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요자 관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달 8일 복지전달체계 개편추진단을 신설했다.

추진단에서는 도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칸막이와 일선의 복지깔대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추진단의 주요 기능은 복지전달체계 기반조성을 비롯해 개편방안 및 개선안 절충협의 마련, 지역단위의 민관협력 모델 개발 및 활성화,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의 및 개선지원에 대한 요청 등이다.

우선 읍·면·동 지역의 행정중심 주민센터를 복지중심 맞춤형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해 민간자원 등과도 연계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제공하는 체계를 갖춰나간다.

이를 위해 업무조정과 인력재편에 의한 복지업무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소규모 동지역을 통합해 복지업무만을 수행하는 거점형 복지센터 운영과 읍면의 경우는 접근성을 고려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통합 사례관리, 방문간호 등의 균형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수요자가 한곳에 방문해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며, 민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민간 복지자원 효율적 배분 및 복지 만족도 향상은 물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가구의 긴급상황을 해소해 도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뜻한 연탄나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와 제주의 소리가 주최·주관하고, 제주시·시온복지회·(사)청년제주가 후원하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나눔' 행사가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간 열린 가운데 제주시장을 비롯하여 자생단체 회원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제주시지역 한 저소득 가구를 방문해 따뜻한 사랑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따뜻한 설명절 조성, 행정공공기관이 앞장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해 지난달 13~29일까지 사회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위문 집중기간을 설정해 대대적인 위문과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103개소 4000여 명,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대상자, 다문화 가정 등 3000여 가구에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00여 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발굴해 직접 위문과 격려에 나섰으며, 공직자로 구성된 물사랑자원봉사단 등 자원봉사단 18개 동아리 572명은 자율적으로 자매결연 시설 또는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목욕봉사, 세탁봉사, 주거환경정비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달 24일 농어업인 회관에서 관련 공무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행정시-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 이주현 팀장은 "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은 동 지자체의 복지깔대기를 해소하고,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가 높은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며 "동 지역 복지허브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 관련 부서는 물론 읍·면·동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준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전달체계개편추진단장은 "취약계층인 알콜리즘, 정신질환자 등 복합가정을 현장에서 돌보고 지원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공무원 중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올해 복지분야 21명을 충원하는 등 사회복지인력을 더욱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도-행정시-읍·면·동 복지관련 담당직원 합동 워크숍을 계기로 복지전달체계개편에 대한 업무공유는 물론 사업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며,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사업진행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道 교육복지, 취약계층 교육지원 혜택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은 교육복지 분야에 지난해보다 33.9% 증가한 77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지원 466억2429만원 △학비 지원 70억6839만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78억7548만원 △급식 지원 74억7090만 원 등이다.

교육복지 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유는 저출산과 맞벌이 가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기준이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다자녀 가정의 수학여행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초등 방과 후 돌봄교실이 초등 1,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 운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과 연계하여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 희망리본프로젝트 확대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성과금 예산을 지원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을 지난해 시행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150명이 참가해 85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당초 목표 75명보다 10명이 늘어난 57%의 취업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수행기관에서 1:1기초상담 후에 교육과 훈련 등 맞춤형 취업준비 지원과 취업알선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에게 교통비와 식비 등 1인당 최대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참여자의 실적성과에 따라 1인당 최대 70만원의 취업성과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예산 5억5천900만원을 투자해 사업참여자를 15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하고 이들 중 90명을 취업시키는 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고용 통합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만덕상 수상자, 올해도 기부와 나눔실천

지난해 김만덕상 경제부문 수상자인 송경애 SM C&C 대표(사진)가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17일 수급자 아동 167명의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5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쌀 20kg 210포를 전달했다.

송경애 대표는 현재 SM C&C 대표 및 RT&I 여행사 대표, 어린이재단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여성최고 CEO이기도 하다.

송경애 대표는 "앞으로도 제주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쌀 나눔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김만덕 기념관이 건립되면 기부문화의 허브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신구간 소외계층 이삿짐 봉사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구간인 지난달 25~2월 2일 중 이사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족, 조손가정 등)이 요청할 경우 행정기관과 봉사단체와 연계해 이삿짐 운반 및 청소 등의 지원을 한다.

이들이 읍·면·동 행정시에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읍면동에서 이삿짐 봉사지원을 하고, 지원이 곤란할 경우 봉사연계단체와 연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봉사인력 및 차량(1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위한 특별지원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안 발표이후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컨테이너, 판잣집 등에서 생활하는 89가구(126명)를 발굴, 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에게 우선 모포 등을 지급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월까지 행정시 희망복지지원단,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통, 리장, 읍·면·동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구를 추가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는 제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해보다 51억 증가한 748억 원 책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보다 51억원 증가한 748억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규사업으로는 지난해 12월 27일 진료 개시한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스포츠 전지훈련팀 등에게 재활치료와 특수치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를 처음으로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공연과 조형, 시각 및 인문예술 등의 교육, 강의형+체험형+관람형 문화학교 운영, 아카이브+갤러리 등 특화된 문화예술공간을 통한 활동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지난해 소득하위 63%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9만 6800원을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돼 사업비 61억원을 투입, 지난해 1430명보다 107명 증가한 1535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교통수당도 확대해 기존 1, 2급 장애인 및 3급 뇌병변 장애인에서 1, 2급 장애인과 3급 전체장애인으로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학대 어린이 위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조례 제정되나

강경식, 윤춘광 의원, 아동공동가정 활성화 조례 입법예고 준비

학대받은 어린이가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윤춘광 의원은 지난달 2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자 및 종사자, 관계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가정해체 및 학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5~7명 정도가 입소해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2명 등에 불과하고, 운영비 또한 지원이 열악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강경식 의원은 "임대료 문제는 타 복지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아동공동생활가정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윤춘광 의원도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보호할 책임은 국가 및 사회에 있다"며 "임대료 및 전세금 등의 문제는 아동복지기금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2월초 발의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문턱 낮추기 및 보조손잡이 설치 등 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서귀포시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이며,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개보수를 원하는 이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총 9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 당 38만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포장, 경사로 설치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및 장판보수 교체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사회복지과(760-2395)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 '해피바이러스 up'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가족기능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관리사업의 일환으로 힐링체험 프로젝트 '해피바이러스 up'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힐링체험 프로젝트는 사례관리대상 가정 10세대(3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말을 맞아 일출랜들 및 아쿠아플라넷 등을 방문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가족의 순기능 향상을 도모했다.

제주시, 둘째자녀 이상 양육수당 확대지원

매월 5만원…1년간, 읍·면·동서 신청

제주시는 올해부터 둘째자녀 이상 출생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둘째이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5만원씩 1년 동안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201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이다.

양육수당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 주민복지과에서 매월 지급한다.

어린이집 부정행위 강력대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으로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근절해 신뢰받는 어린이집 만들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행정기관이 주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집연합회의 참여가 더해져 어린이집 부정행위 제로 달성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행정시별 어린이집 부정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보육지침 및 재무회계 교육강화로 어린이집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 1000만원 이상 횡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에 쌀 구입비 지원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양곡 지원 신청을 한 3073가구에 대해 2013년산 정부양곡을 50% 할인해 지원한다.

2014년 1월 정부양곡 지원사업을 신청한 저소득층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2390가구, 차상위 가구 683가구 등 총 3073가구다. 이들 가구에는 20kg들이 쌀 1포대가 2만 1500원에 제공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구는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1)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사회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은 지난달 20일 사회복지시설 정혜재활원과 평안요양원을 방문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 50여만 원을 전달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명절에도 매월 실시하는 희망나르미 봉사활동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아인협회, 영화 '수상한 그녀' 베리어프리 버전 상영

영화 '수상한 그녀'를 베리어프리 상영한다.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는 2월 셋째주 화, 목, 토요일 CGV제주에서 영화 '수상한 그녀'의 베리어프리 버전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이 추가됐으며, CGV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 19시대, 목요일 14시대, 토요일 10시대를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로 정하고 전국 17개 극장에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 버전 영화를 상영해오고 있다.

영화 관람요금은 80% 할인된 금액(1인당 1천원 부담)이며, 청각 시각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743-3920/3922, 영상전화 070-7947-0351/0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베리어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이다.
'베리어프리 영화'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글자막이 제공되는 영화다.

소/식/마/당

탐라장복, 발달장애아동 겨울방학 프로그램 진행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은실)은 지난달 2~23일까지 발달장애아동 겨울방학 프로그램 '우리 뭐할까?'를 진행했다.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한 이번 프로그램은 스포츠 및 미술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부모님을 위한 공예프로그램과 나들이를 통한 체험학습 등이 진행됐다.

아동과 함께하는 산골체험캠프 진행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 16~17 일정으로 지역아동 20명과 함께 유수암 생태체험학습장에서 산골체험캠프를 진행했다.

원터치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을 땔 수 있는 땔감을 직접 구해 지게를 나르고, 가마솥 밥을 짓는 등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체험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마련했다.

새해맞이 자립캠프 실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해 12월 31~1월 1일 이틀간 제주시 아모렉스 펜션에서 도내 중고등학생 위탁아동 35명을 대상으로 새해맞이 자립캠프 '오늘과 다른 내일'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의 첫째 날에는 문화체험 활동으로 볼링과 난타공연을 관람했으며, 둘째 날은 해돋이와 한해를 정리하기 위한 활동 및 새해 계획세우기 등을 실시했다.

일배움터, JDC와 업무협약

일배움터(최영열 원장)는 지난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일배움터 최영열 원장과 JDC 김한욱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식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모하고, 상호 윈-윈 효과 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배움터는 제주국제공항 내 JDC 면세점에서 실시한 마케팅 행사의 사은품으로 증정될 '푸른제주 농산물 세트'를 납품했으며, 지난달 1일부터는 일배움터 '푸른제주 농산물 2종세트(고사리, 표고버섯 세트)'를 납품할 예정이다.

장애인 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내 장애인 및 가족은 누구나 참가 가능한 이번 교육과정은 기초 인터넷을 비롯해 인터넷 고급활용(파워 블로거), 한글문서 작성, SNS, 스마트폰 사용법, 자격증 취득 과정 등으로 진행한다.

각 교육과정은 최소 2~4달간 진행하며, 수강생은 각각 6명씩이다.

교육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정보화 교육장이며, 신청 및 문의는 문화지원팀(702-0295)으로 연락하면 된다.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는 주민들과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연계한 'Old & New' 프로그램과 마을신문 만들기, 마을합창단 구성 등이다.

이를 위해 마을 소식을 널리 알리고 전할 신문기자 및 편집위원과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접수 문의는 아라종합사회복지관(702-4605)로 연락하면 되고, 교육비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다.

서귀장복, 장애인복지평생교육아카데미 진행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달 21~25일까지 장애인당사자 및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부모아카데미와 장애인복지아카데미를 진행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우리마루에서 무료로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석원 부회장이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이드치료연구소 지경주 대표가 '이야기와 드라마 치료(스트레스 해소)' 등이 진행됐다.

장애인복지아카데미에는 김종원 사회복지사가 '홍보로 사회사업하기', 다음커뮤니케이션 육심나 사회공헌팀장의 '미디어로 소통하기',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철민 국장이 '소셜미디어로 지역사회 소통하기', 김세진 사회사업가의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활용' 등의 강의로 꾸며졌다.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목욕탕 운영

동광효도마을은 지난해 노인복지기금 3천5835천원을 투입해 동광효도마을 목욕실에 사우나와 향토방 등의 시설을 갖춰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전용 목욕탕을 운영 중이다.

남부발전 부녀회의 정기적인 목욕봉사로 지난 10회간 150여 명의 어르신이 이 목욕탕을 이용했다.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해 12월 17일 도내 14명의 학대피해어르신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김장김치를 받은 어르신들은 추운겨울 반찬걱정 하나가 줄었다고 밝은 미소로 반겨주셨다.

미 담

"마음이 담긴 편지"

1월 어느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온누리봉사회에 서툰 글씨로 쓰여진 '마음이 담긴 편지' 한통이 배달되어 왔다.

편지의 내용은 '반찬 항상 감사합니다. 굴무침과 전복죽 더욱 더 마싯게 잘 먹었읍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밑반찬 배달을 시작한 20년 동안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에게 전하며 '고맙다' 는 말도 들어봤고, 본인이 드시는 알사탕이며, 먹거리 등으로 보답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봉사자 분들은 이런 작은 마음에 힘이 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정성을 담아 조리하고 배달해 주어야겠다고 하셨다.

오늘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행복나눔터는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열기가 한가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사랑나눔푸드마켓 기탁

KBIZ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회장 지덕설)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푸드마켓(회장 고치환)에 25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기부된 상품권은 중소기업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적립하여 모은 것으로 KBIZ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통해 매년 도내 어려운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기금은 사랑나눔푸드마켓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물품 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봉아름지역아동센터 제3회 온새미로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 참가

봉아름지역아동센터(시설장 임진희)는 지난달 30일 센터 아동과 함께 제3회 온새미로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늘푸른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용담,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가 참가했으며, 봉아름과 이호지역아동센터가 찬조출연해 아동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 됐다.

아름다운 가게 도내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및 도서지원비 전달

(재)아름다운가게(이사장 홍명희)는 도내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1000만원과 도서지원비 10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이정필)에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 난방비를 100만원씩 추가 지원했으나 방학을 맞아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난방비 지출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름다운가게는 단체생활 공간에서의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내 10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으며, 학년별 영역별 신간 도서를 제공해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원단은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24개조로 나눠 각 조별로 3회에 걸쳐 15권 내외의 도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며, 아동 독서감상문 공모와 지역아동센터 독서활동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해 배분된 도서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수목의 향기-우리들의 솜씨전

제일지역아동센터는 지난달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성안미술관에서 '수목의 향기-우리들의 솜씨전' 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동양화를 통해서 배워보는 우리들의 전통문화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해온 작품 20여점을 가지고 진행됐다. 이날 전시된 작품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사군자와 한국화란?

▪사군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로서 각자의 특성을 선비정신으로 이입시켜 의인화해놓은 그림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 국화꽃은 찬 서리에도 시들지 않고 정숙하고 변치 않는 색을 지녔다 해서 군자로 칭하고 난초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깊은 산중에서도 향기를 내 뿜는다 하여 이 역시 군자로 칭한다.

▪한국화= 주위의 사물들과 식물 그리고 야생화들을 스케치하여 화면위에 재구성 한 다음 작품들을 완성하는데 작품의 제작 의도는 사물들을 관찰하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며 이것들을 바탕으로 감상자가 야생화들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동양화를 통해서 자유롭게 표현하여 보게 되는 부족하지만 아이들의 조그마한 소망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볼 수 있다.

1 김순희선생님 / 묵란
2 김수인학생 / 황국
3 백보영학생 / 하르방
4 현지민학생 / 묵란
5 박잎새학생 / 털머위
6 이윤지학생 / 나비
7 김현정학생 / 해바라기

칼럼

신임 회장체제 출범과 협의회 역할

한 영 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본격적인 고치환 신임 회장 체제로의 깃발을 올렸다. 1986년 협의회 창립과 함께 올해를 기점으로 제6대 회장단이 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갑오년 말띠 해를 시작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협의회, 도약 위한 중요시기

협의회 발전과정은 지난 28년간 3번의 변화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86년부터 2004년까지 18년간 제1·2대 강도아 회장이 맡았던 시기를 초창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협의회 출범과 함께 조직 안정화를 다지는 시기이다. 다음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제3·4·5대 이동한 회장이 맡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각종 사업을 확장시키는 성장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협의회는 부설기관 설립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우선 초창기 사업을 보면 1991년 사회복지정보센터 설치, 1992년 아라종합사회복관 위탁운영, 1998년 부설 독립법인으로 아라어린이집 개원, 2004년 광역푸드뱅크 지정 운영 등이다. 그리고 성장기에는 2008년 최대 현안인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준공, 2009년 사랑나눔 푸드마켓 개점, 2012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5년사 편찬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협의회 조직구성을 보면 회장을 중심으로 2개 부설기관(복지관, 어린이집), 1개 사업부(복지), 3개 전문팀(교육, 지원관리, 나눔사업), 그리고 사무처를 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이사회와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직구성원은 2014년 1월 현재 회원 215명(시설)에 상근직원 21명(협의회 10명, 복지관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회 주요 사업은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종합정보망 '제주복지넷'과 '제주사회복지신문'을 통한 정보제공, 둘째는 아카데미를 통한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 셋째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푸드뱅크와 푸트마켓사업, 넷째는 인증관리 등 자원봉사육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증진사업이나 조사연구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업의 성과는 회장을 비롯한 상근임직원 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동한 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퇴임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제주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회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향후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제6대 신임 회장단은 본격적인 도약기 채비를 하고 있다. 고치환 신임 회장은 취임 신년사를 통해 "화합과 융서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회장으로써의 언행을 조심하고, 원칙을 지키며,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기동안 정직과 투명성을 통해 존경받는 사회복지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장으로서의 지켜야할 품위적 관점에서 적절한 의지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협의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나 사업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대표사업 키워야

그런 차원에서 2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협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과 이를 성공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사회에 각인시킬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수혜대상 중복적 지원 등 체계화가 미흡하기 때문에 조직의 일원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제주사회 복지가치를 더욱 높이는데 협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기고

제주시, 시민행복을 위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강 창 용
기획예산과

우리시에서는 지난 13일 제주시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 만들기를 위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2014년 우리제주시정의 3대 목표를 중심으로 분야별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원도심 재생사업에 총 330억원을 투입하고, 총 57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75억원, FTA에 대응하기 위한 1차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697억원을 투입하여 개방에 맞서 나가고 또, 미래가 설레이는 희망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 수용태세 확립 및 생태관광 기반을 확충에 51억원, 제주성지 복원 등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63억을 투입하며 제9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372억원)하고 보강된 인프라를 활용한 스포츠 산업 등을 육성하여 지역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며,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시정 현안인 생활 쓰레기·교통·주차난 해결을 위해 362억원을 투입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섬세한 민생시책,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따뜻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764억원을 투입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 분야별 계획이 보고됐다. 특히 신규 폐기물 시설 후보지 선정, 재선충 확산방지를 통한 늘 푸른 숲 조성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FTA 대응을 위한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시민 행복을 위한 민생시책 등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업무파악과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아나가기로 하는 한편, 2014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2월중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 행복한 시민 살고 싶은 제주시의 올 한해 시정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론

노인장기요양시설, 거주자중심케어로 어르신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있게

양 지 연
위미에덴요양원장

우리나라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5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에는 707만 명(14.3%), 2026년에는 1022만 명(20.8%)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의 증가, 노인 빈곤, 고독과 소외감, 사회적 역할 상실 등 노인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요양보호가 필요한 고령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저출산에 따른 핵가족화, 전통적으로 돌봄을 맡아오던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돌봄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가족의 심적 부담 가중 등으로 가족에 의한 노인 돌봄은 한계에 이른 상태이다.

이로 인한 노인의 사회적 수발 책임의 요구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수가 2008년 1832개소에서 2012년 4352개소로 급속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제도 시행 초기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자 부족에 대한 우려로 시장진입장벽을 낮춤에 따라 양적 공급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지원에 대한 질 관리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거주자 중심케어, 당사자가 존엄과 경의의 대상이 되는 것

의학적 치료모델에 기반 한 전통적인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는 의식주와 같이 주로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중점을 두면서, 어떻게 하면 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향상하고 이들의 잔존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케어의 기본이자 핵심가치였다. 이러한 시설에서 노인은 인간성을 존중받기 보다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또는 질병의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시설의 직원들은 거주노인과의 인간적인 관계형성보다는 주어진 업무만을 완수하는 과업 중심적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거주노인과의 애정적이고 인간적인 관계형성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선택권, 심리적, 영적인 욕구와 같이 노인의 삶에 중요한 가치적인 것들은 쉽게 박탈당할 수 있으며, 거주노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한 케어의 대상자로만 전락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전통적인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지닌 다양한 폐단과 비판이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OECD국가를 중심으로 거주자중심케어(Resident-Centered Care)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거주자중심케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케어의 관점을 시설중심이 아닌 거주노인에게 두고 이들의 가치와 선호, 욕구에 기반 한 케어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지향해야하는 핵심적인 케어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주자중심케어는 거주노인의 인지능력이나 질병에 관계없이 이들이 존엄과 경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스스로가 케어활동의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총체적인 케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별성과 선택권의 보장, 관계형성, 집과 같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조성 등을 통해 케어의 질과 삶의 질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거주노인들은 대부분 쇠약하고 인지적 손상을 겪고 있지만, 자신의 선호와 욕구에 기반한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이들에게도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0) -겨울산행

아름다운 제주의 겨울 한라산 등산준비, 이렇게 하세요!

▲몽생이기자단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한라산을 방문한 등산객을 위해 겨울 산행준비에 대해 취재했다.

제주도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처럼 품고 우뚝 서 있는 한라산도 겨울을 맞아 흰색 옷으로 갈아입고 등산객들을 맞을 채비를 끝냈다.

아름다운 한라산 겨울정취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은 비단 우리 제주도민 뿐만은 아니다. 육지에서도 많은 산 매니아 분들이 일부러 우리의 겨울 한라산의 정취와 정기를 찾아 제주도를 방문하기도 한다. 이렇게 한라산의 설경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 겨울산행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명산인 한라산을 겨울에 제대로 만끽하려고 하면 다른 계절보다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몽생이 기자단, 이번 달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겨울 한라산과 오름을 방문하는 등산객들을 위한 겨울산행 준비에 대한 취재를 해 보았다.

겨울산은 다른 계절에 비해 온도도 낮고 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환경적으로 다른 계절보다 위험해 산행이 쉽지 많은 않다. 산행을 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등산에 적절한 의류 및 장비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몽생이 기자단과 함께 겨울산으로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체크해 보아요!

1.보온과 방수가 되는 의류와 장비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2. 산행을 가기 전, 일기예보를 꼭 확인합니다.

3. 체력안배에 신경쓰며, 저체온증에 주의합니다.

4. 일찍 출발하고 일찍 하산합니다.

5. 기상센터는 국번없이 131, 산악구조는 국번없이 119. 잊지 마세요!

몽생이 기자단에서 2014년 새해 맞이 기획특집으로 진행 하고자 했던 '우리고장에 대한 10대들의 시선' 은 내부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몽생이 기자단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❻

주민등록증없이 살아온 한 평생, 이제는 아닙니다.

정 광 영 법무관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무호적자로 살아온 한평생, 너무 힘들었습니다."

A씨(남, 80대)는 평생을 무호적자로 살아왔다. 젊은 시절에는 꼭 호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적극적으로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았고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무호적자 상태로 살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느덧 80세가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뇌경색이 발병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도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었다.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나날만 계속되었다.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구청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법률홈닥터가 A씨를 만나게 되었다.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를 신청하다.

법률홈닥터는 사례관리 담당자와 만나 A씨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직접 가정방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례관리 담당자와 동행하여 가정을 방문한 법률홈닥터는 병환으로 몸져누워있는 A씨와 대화를 나눠야 하지만, 다행히 A씨가 연세에 비하여 의식이 또렷하고 의사전달이 명확하였던 관계로 A씨의 지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법률홈닥터는 주민등록증이 없이 살아온 세월의 어려움을 차근차근 들었으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A씨와 앞으로의 절차를 걱정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법률홈닥터와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 A씨는 밖으로 꺼내기 힘들어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법률홈닥터는 왜 여태까지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A씨에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부탁했다. 법률홈닥터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담당자와 함께 성장환경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심판 절차를 진행하였다.

"법률홈닥터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

A씨는 그동안 주민등록을 만들고 싶어 이곳저곳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았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험을 말하면서, 법률홈닥터가 직접 와서 설명해주니 안심이 된다며 너무나 고마워하였다.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 중에서

INFO

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가족관계등록창설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등록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이 되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서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심판청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대상이 된다.

법률홈닥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홈닥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10일 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갑오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및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이·취임식 및 사회복지인 갑오년 신년인사회 개최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맞아 제주도 내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10일 제주시 화북동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갑오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방기성 행정부지사, 신영근 도의회 복지안전위원장, 도내 행정기관 관계자, 도내 각급 기관 및 단체장과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기원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3~5대 회장을 역임한 이동한 회장의 이임식과 제6대 고치환 회장의 취임식이 함께 진행됐다.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의 산증인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동한 前회장에게 직원들은 '재임 기념패'를 전달했으며, 자원봉사연합회와 사회복지신문 편집위원회는 각각 준비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3대~5대 회장으로 역임한 이동한 前회장은 재임기간동안 회원규모가 57% 성장했으며, 예산규모 역시 40% 성장하는 등 양적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협의회 회관을 걸립함으로써 제주지역 사회복지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자원봉사조리작업장 건립비용 2600만원을 후원해 밑반찬 및 도시락배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여건을 개선시켰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연중 실시해 1만여 명의 교육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협의회와 지역사회 복지발전의 가교역할을 했다.

이동한 前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9년간 짧지 않은시간 이자리를 떠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 "후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지붕 한가족처럼 아량을 배풀고, 서로 감싸안으며 부정요소가 긍정요소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전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6대 고치환 신임회장은 1964년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1년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노회 노회장을 비롯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 서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위원 등을 역임했고, 1997년 평안전문요양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고치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화합과 용서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이끌어가겠다." 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 반칙 없는 원칙, 정직과 투명성 회복을 통해 임기 동안 새로운 변화의 발자취를 남기겠다. 앞으로 3년간 사회복지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협의회를 운영하겠다." 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자원봉사에 자부심, 명예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자들에게 기념 배지(순금 1돈)를 수여하는 순서도 마련돼 행사의 의미를 더 했다.

푸드마켓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월 식품기탁자

▲강복임씨=감귤 21kg ▲김명실씨=떡 8.4kg ▲김신희씨=감자 5kg, 무 5kg ▲김은숙씨=쌀 20kg, 감귤 15kg, 세탁세제 2개, 여름용방석 5개 ▲김인숙씨=편육 및 족발 27개 ▲ 안신희씨=무나물 30kg ▲금강축산유통=육류 556kg ▲김치원=김치 60kg,▲뉴월드마트신제주점=냉동만두 60개 ▲동원F&B제주=식재료 1911개 ▲모금회지정기탁(청년제주 강창수)=쌀400kg ▲삼다유통=삼다수(2L×6) 300팩 ▲서문식품=두부 371모 ▲이든이네=멸치 9kg ▲자연드림 이도점=빵 140봉, 감자 14봉 ▲제성상회=훈제닭 10개 ▲제주보리촌=보리빵 77봉 ▲제주피클=양배추 78망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양배추 55망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370봉 ▲존샘봉사회=상품권 20만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상품권 250 만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난타동아리=성금 1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2013년 12월 후원금 현황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1,650,000	1,580,000
난치병환아후원	30,000	1,000,000
자원봉사후원	4,130,000	4,130,000
복지사업후원	592,388	589,850
푸드마켓후원	2,855,000	4,927,26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